손은 빈 채로 두고 마음은 가득 채우기

(딤전6:1~10)

3.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4. 그는 교만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 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6.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7.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손은 빈 채로 두고 마음은 가득 채우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손은 빈 채로 두고 마음은 가득 채우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사를 하면 장사라고 하는 행동을 한 결과로 손에 쥐어지는 게 있어야 만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 흑자라고 하는 결과가 손에 쥐어져야 됩니다.
구체적인 결과가 손에 쥐어지지 않는데 마음이 만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양육한다, 그러면 뭐 좀 일류대학 합격증이라도 손에 쥐어질 때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충만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고등고시에 패스했다, 내로라하는 가문의 여식을 며느리로 삼게 됐다, 이럴 때 우리 마음

에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손에 구체적인 쥐어짐이 있어야 만족한 것,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이거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죠.

그런데, 참으로 신앙의 아이러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계속해서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 마음이 만족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그 신앙이 무효가 되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다른 교훈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겁니다.
손에 쥔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육체로 만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게 손에 쥐는 거예요.
이렇게 손에 쥐는 것이 있어야 마음이 만족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교훈을 베풀고 있고 다른 교훈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무효가 되는 것이고,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고,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기회조차 빼앗겨버린 상태로서 복음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사람들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디모데전서가 끝나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디모데에게 다시 한 번 1장 3절에서 다른 교훈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권면해주십니다.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뭡니까?
참으로 두루뭉술하게 느껴지고, 구체적으로 뭔가 확실하게 답해지지 않잖아요?
이것 외에 주어지는 게 다 다른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은 오늘 본문 4절에,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라고 하는 걸 미루어서, 학자들이 사도바울이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궤변론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타당한 얘기에요.
궤변론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아주 논리적으로 공교하게 꾸며서 흠을 잡을 수 없게끔 말하는 자들이 궤변론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들, 만나기만 하면 성경구절 가지고 해보자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와서 믿는 사람들을 논리로 굴복시켜서, '봐라, 그러니까 여호

와의 증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참 진리 아니냐?' 이렇게 사람을 끌어가려고 하는 이게 궤변론자들입니다.

근데 이 궤변론자들이 이단이라고 정해진 사람들에게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궤변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그리스도의 교훈과 경건의 교훈을 떠난 자들로 신앙적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인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모든 이름과 용어들이 다 그들의 논리 속에 들어있지만 궤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궤변론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손에 구체적으로 쥐는 것이 있어야 마음이 만족하다고 믿기 때문에 궤변론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궤변론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요.
그 감각은 예수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한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궤변론자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궤변론자들의 속마음은 손에 쥐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궤변론자들을 가려낼 수 있는 청진기와 같은 주 예수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뭡니까?
우선 경건에 관한 교훈은 한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걸 성경에 나온 대로 말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에 직장생활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 가정생활 하라는 얘기에요.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교훈의 뜻이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달라집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돈을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애인을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교회에 들어와서 믿는다고 할 때 궤변이 통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돈을 사랑하거나 명예를 사랑하거나 숫자적인 부흥을 사랑하거나 할 때, 같은 처지에 있는 교인들에게 궤변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 궤변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자녀의 형통, 사업의 흑자를 허락하시고 건강장수를 허락하신다, 이렇게 궤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궤변입니다, 궤변.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대상으로 정하고, 그 하나님만으로 에덴을 이루고자 하는 게 경건입니다.
근데 궤변론자들과 궤변론자들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자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면서 에덴을 이루려 합니다,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사업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면서 에덴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등지고 있으면서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에덴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동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5절에 나오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경건의 교훈이 뜻하는 바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행동에 옮길 수 있습니까?
옮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말씀이고, 예수님의 행동도 말씀이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로 합쳐지느냐?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귀결되고 모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고,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마음과 육체가 끈끈하게 연합되어 있는 상태의 '나'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마음이 부활하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 마음이 승천해서 주님이 아버지하나님을 하늘에서 맛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는 자리에 마음이 머물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의 완성이고, 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예수님 말씀의 총화요 귀결이고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육체로 만나게 되는 이 세상의 상황과 대상에 대해, 그것이 가족이든 끔찍하게

생각하는 장사건 사업이건 그것에 대해서 죽는 거니까, 마음이 죽고 뜻이 죽고 힘이 죽으니까, 그 마음과 뜻과 힘이 다 어디로 갑니까?
부활하신 주님 따라 승천하신 주님 따라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경건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돈입니다, 내 자존심과 연관된 명예고 자식입니다, 건강입니다.
이럴 때 십자가는 뒷전으로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교훈이 들어오게 됩니다.
충성 봉사하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을 내 손에 쥐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리고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분명히 5절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하며 비난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6절에 곧바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똑같이 경건을 이익과 연관을 시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좋아하며 사랑하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가 좋아하는 게 예를 들어 예배당건축이라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마음이 쏠리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등지고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으면서 예배당건축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순이지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자식을 좋아하게 되면 이미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해놓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능력을 불러들이면서 자녀에 대한 나의 소원을 현실로 손에 쥐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때 다른 궤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무병장수한다, 이게 궤변이 아니고 뭡니까?

진짜 무병장수하고 오래 살았습니까?
병이 하나도 없는데도 일찍 죽었어요, 박해받고 사자 밥 되고, 불에 타고 쫓겨 다니느라고.
왜 거짓말을 합니까? 이게 궤변론자에요.
근데 성경의 여기저기 구절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논리적으로 그럴 듯하게 꾸미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앙적인 궤변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궤변론자가 되지 않으려면 '마음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에덴을 이루자' 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빈손으로 왔지요, 출발점이 빈손입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갑니다, 죽을 때 빈손으로 가요, 아무도 지갑 갖고 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이는 뭡니까?
빈손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경건입니다.
그러면 왜 빈손으로 삽니까?
우리가 빈손을 두고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손에 무언가 쥐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 안에 이 세상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현실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빈손을 두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손에 뭔가 쥐어져야 마음이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살다가 빈손으로 가라는 얘기에요.
그러기 위해서 자족하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족이 됩니까?
손은 비어둔 채로 마음이 만족하는 게 자족이에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를 통해서 내 손에 쥐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은 만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날마다 생활화해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주님과 연합해서 그 길을 날마다 반복해서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음이 에덴을 이룹니다, 마음이 채워집니다.

그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미 에덴을 이루어버린 상태, 이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손으로 쥐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에덴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부족함을 느끼면서 이 세상에서 손으로 쥐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만으로 에덴을 이루려는 정통 진리를 떠나서 궤변론자들이 될 것이고, 교만해질 것이고 마음이 부패해질 것이라는 얘기에요.

교만하다는 얘기는 헬라어의 뜻을 그대로 살리면, 연기를 피운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 방안에서 나뭇잎을 가득 모아다가 축축하게 적신 다음에 불을 붙이면 연기가 날 것 아닙니까? 이 좁은 방안에서 연기를 피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궤변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대신에 다른 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궤변론자들이 교회 안에서 연기를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연기를 피워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매캐하게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좋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담배가 그렇게 해로운데도 그게 좋아서 날마다 피우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돈과 연관을 지어서 얘기합니다.
결국 그 옛날 웅변술과 변론술을 가르치며 돈을 번 것처럼 신앙세계 안에서 왜 궤변론자들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 말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는 대상 중에 대표적인 게 돈이라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참담한 사건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졌잖아요.
저는 남의 일인데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할 정도로 참담합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안산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한 학년 자체가 통째로 사라지게 생겼어요.
280여 명이 아직도 실종된 상태입니다.
바다에 빠져서 그렇게 됐어요, 바다에 빠져서.
남의 일이라도 요새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 젊은이들, 젊은이들뿐입니까, 선생님들 배에 있던 승무원 중 22세 된 여자 아이, 가슴이

울어요, 가슴이 하루 종일 울어요.
정말 고난주간에 이게 웬일인가 싶어요.
그런데 오늘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 자식이 육체적으로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는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견뎌내겠나.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심판하여 지옥으로 보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몸이 바다에 빠져서 목숨을 잃는 것도 이렇게 남의 일이라도 끔찍하게 내 일처럼 아프고 참담한 심정이 되는데, 나중에 주님 오셔서 우리 영혼이 멸망의 바다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바다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멸망의 바다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가장 대표적인 첩경이 뭐냐 하면, 돈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돈을 이 세상에서 손에 쥐고 싶어 하는 것, 이게 바로 내 영혼이 지금 멸망의 바다에 빠지는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정신 줄을 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궤변론자들의 교훈에 완전히 취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부자가 돼서 만족하려고 합니까?
손 하나 까딱하기 전에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만족해져야 되는 것이고, 손 하다 까딱하기 전에 에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담이 눈뜨고 태어나서 처음 세상에서 본 게 에덴이었어요, 기쁨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손 하나 까딱해서 뭔가 이 상황을 바꾸고 변하고 돈을 더 벌고, 하기 전에 이미 에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제쳐두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다른 것을 사랑함으로써 손에 쥐고 싶어 하며 살아갈 때, 궤변론자들의 교훈을 따르게 되고 궤변론자들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은 진도 앞바다에 몸이 빠져 죽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죽음, 멸망의 바다에 빠지는 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면 조금 바꿔서 응용하면 이렇게 돼요, 자녀를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일만 악까지 안 되더라도 일천 악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예배당 건축을 사랑하는 것이 오천 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교회 숫자의 부흥을 사랑하는 것이 칠천 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돈이 가장 많은 악과 연관이 돼있으니까 돈을 대표로 내건 거지요.

하여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육체로 만날 수 있는 대상과 상황들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면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살면서 빈손으로 가도 에덴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손으로 쥐어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으려는 이런 허황된, 연기를 피우는 것과 같은 거짓된 마음가짐으로 살면 멸망의 바다에 빠지게 될 거라는 얘깁니다.

여러분, 신비한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 평강과 구원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상태에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살며 빈손으로 갈 그런 삶에서 에덴이 이루어지는 신비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에덴이 이루어진 마음가짐으로부터 하나님이 내 이 육체를 장갑 삼아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다른 사람이 보기에 괄목할만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도 내 손으로 쥐지 않습니다.
손으로 쥐어버리면 또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병자를 고치셨다, 탁탁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붙잡고,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돼버리기 시작하면 또 올무에 빠지고 멸망의 바다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대상이건 상황이건 사건이건 어떤 것도, 잘되는 상황이건 못 되는 상황이건, 우리 마음으로 접촉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음은 주님의 십자가를 경계로 해서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접촉을 뗌으로써 아예 안 보고, 안 만지고, 안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느끼고 하나님을 통해서 에덴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 전에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했던 가정, 직장, 사업, 애인,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 마음을 온전히 에덴으로 이룬 다음에, 쥐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그것들에 대해서 역사하시도록 내 손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움직이시도록 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손을 빈 채로 그대로 놔두고 마음을 채우면서 에덴을 이룬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신앙의 신비를 다 놓치고 나 스스로 궤변을 늘어놓고 그 궤변을 또 듣고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연기가 피워진 방안에서 캑캑거리고 있는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교훈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바로 깨달아 마음으로 이미 빈손인 채로 에덴을 이루며, 내 손 대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삶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